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입학상담 : 062-520-2555 동강대학

光州日報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4.28%(복리)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1/14℃ 목포 3/12℃ 여수 6/13℃

단기 4343년 (음력 10월 1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835호 1판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벌써 총선 행보…

각종 포럼 출범 등 지역정가 꿈틀
박광태 前 시장 북구 출마설 관심

2012년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5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총선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유력 정치인 및 정치 신인들의 물밑 행보가 빨라지는 등 지역정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그동안 텃밭 프리미엄을 누렸던 민주당이 잇단 '공천 잡음'으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경쟁 예비후보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고 틈새를 노리며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정치 성격을 띤 각종 포럼이 새롭게 출범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서서히 밑바닥 민심을 다지는 등 차기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광주지역 현역 국회의원들도 차기 총선을 겨냥해 국정감사와 대여·대정부 투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을 내 지역구를 자주 찾아 조직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 동구 선거구의 경우 교수직까지 사퇴하고 배수진을 친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17대 국회의원 당시 조직된 모임을 중심으로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서구는 민주당이 두 번의 서구청장 선거에서 잇따라 패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면서 2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노리는 유력 정치인들이 대거 거론되고 있다. 우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용화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근 (사)호남미래연대를 창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5개월 만에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한 10·27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송갑석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등 구청장 예비후보들도 '와신상담'중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오병윤 전 민노당 사무처장이 차기 총선에서는 서구 선거구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도 차기 총선 출마 유력 후보군으로 점쳐지고 있다.

2개의 선거구가 있는 북구도 다수 후보들이 물밑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임내현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최경주 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 등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최경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이 북구 출마를 저울질하며 세결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지역정가에서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북구 출마설이 나도는 등 박 전 시장의 정치재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활동 재개설을 일축했다.

광산의 경우도 전갑길 전 구청장과 유재신 전 광주시의원이 차기 총선을 준비중이며, 강박원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이정남 전 광주시의원 등도 차분하게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차기 총선이 1년도 훨씬 넘게 남았지만, 벌써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자성론이 크게 대두하면서 유권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다"라며 "내년 초부터는 유력 정치인은 물론 정치 신인들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 신바람 교육 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22일 KT정보통신센터 교육장에서 율동강사로부터 공직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FUN 고객만족 신바람 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북구청 교통과와 13개동 주민센터 등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 직원 50여명이 참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만원씨도 '5·18 막말'…파문 확산

5월단체·민주당, 이영조 해임 촉구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민중 반란(a popular revolt)'이라고 표현<광주일보 20일자 2면>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월 단체들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민주당도 '정신나간 위원장의 헛소리'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해임시키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반해 보수 성향의 군사평론가 지만원(69)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과거사위가 5·18 등 도치된 역사 바로잡는다'는 글을 올려 반발을 사고 있다.

이규의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진실화해위 이 위원장의 망동은 용서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진실화해위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난글이 쇄도했다. '윤홍주'라고 밝힌 네티즌은 "당신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위원장이라는 것이 창피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DJ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만원씨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고 깨인 사람들의 눈에는 5·18이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행위로 보이지만, 배우지 못해 쉽게 세뇌당했거나 처음부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우긴다"라며 이 위원장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반박자료를 내고 "결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 위원장의 'a popular revolt'라는 표현을 '민중 봉기'로 해석했다. /양수현기자 yang@

정영조 카보대표 전남도 책임론 제기

행정사무감사 출석…F1 의혹 관련성 부인

F1(포뮬러원) 대회운영법인인 KAVO의 정영조 대표가 그동안 경주장 건설 및 대회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한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전남도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경영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남도가 이사회를 통해 1000원짜리 밥값마저 관여하는 등 대회 운영 전 과정을 컨트롤해왔는데 뭐가 불투명하느냐"면서 전남도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KAVO 운영에 전남도가 관여한 만큼 전남도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정 대표는 또 "지난 2006년 협약을 맺을 때만 해도 전남도가 개최권료와 경주장 부지를 무상 제공해주고 공사비도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오히려 계약 내용이 바뀌면서 개최권료는 카보가 모두 내게 되고 경주장 건설비용은 나눠서 내게 됐다"고 반박했다.

경주장 건설 지연에 대해서도 "기상 문제 외에 올 2월 가설스탠드 설계가 마무리됐지만 재무적투자자들이 수익 구조를 내세워 스탠드 규모를 8000석~1만석 가량 늘릴 것을 주문해 재설계했고 전남도도 19일에 걸쳐 회계감사를 하면서 결국 7월에야 발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수전자설비 공사비 증액에 대해 "F1경주장 전자설비를 해 본 국내업체가 없어 외국업체로 선정됐으며 공사비도 227억원 그대로 진행돼 증액되지 않았다"며 애초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73억의 추가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와 다른 주장을 폈다. 추가 공사비도 정영조 대표는 861억원으로, 전남도는 1025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정 대표는 이어 "KAVO가 전남도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전남도가 이미 충분히 관여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주동식 전남도 F1대회지원본부장은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냈는데 관철되지 않았으며 경상비 절감 권고도 카보가 일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조정이 없었다"면서 "물자구입을 하면서 원가심사를 안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각각 반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와 동아일보사(사장 김재호)는 22일 대전 우송대학교 회의실에서 종합편성채널과 관련 공동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희종 강원일보 대표이사, 송광석 경인일보 대표이사, 김순규 경남신문 회장,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김종렬 부산일보 대표이사, 이창영 매일신문 대표이사, 유제철 광주일보 대표이사, 신수용 대전일보 대표이사) /신호철 기자canon@daejonilbo.com

한신협-동아일보 종편 공동협력키로

보도채널은 연합뉴스와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와 동아일보사(사장 김재호)는 22일 종합편성채널과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공동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일보를 비롯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전북일보, 제주일보 등 전국 권역별 9개 지방사 발행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는 이날 오후 대전 우송대학교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동아일보사가 추진하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상호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방송문화 및 지역문화언론 발전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해각서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적정한 운영과 지역 언론사를 고려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및 정보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신협은 또 보도전문채널과 관련, 연합뉴스와 협약을 맺고 콘텐츠 및 인력교류, 공동사업 개발 등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김대호 기자 bictiger77@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할인
• 객 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칠순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 연회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 가군 원서접수 12월17일~22일
각대학원 원서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MUSEO 뮤제오 광주점 OPEN
Luxurious Furniture
이태리의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다!
이탈리아에 가지않아도 ...
서울 강남에 가지않아도 ...
광주에서 만나는 고품격 이태리 명품 가구!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실내장식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태리의 명품 수입 가구!
강남 논현점에 이어 광주점에서 선보이는 이태리의 멋과 예술-
소수에게만 허락하는 품격과 자부심을 광주 뮤제오매장에서 확인하십시오.
MUSEO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뮤제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369. 9100 Fax 369. 9101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농성역 농성교차로 ← 화정역 상록회관 → KB 국민은행 ↓농성동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오픈기념으로 물품 구입 고객님께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수입원 : HH개발(주)